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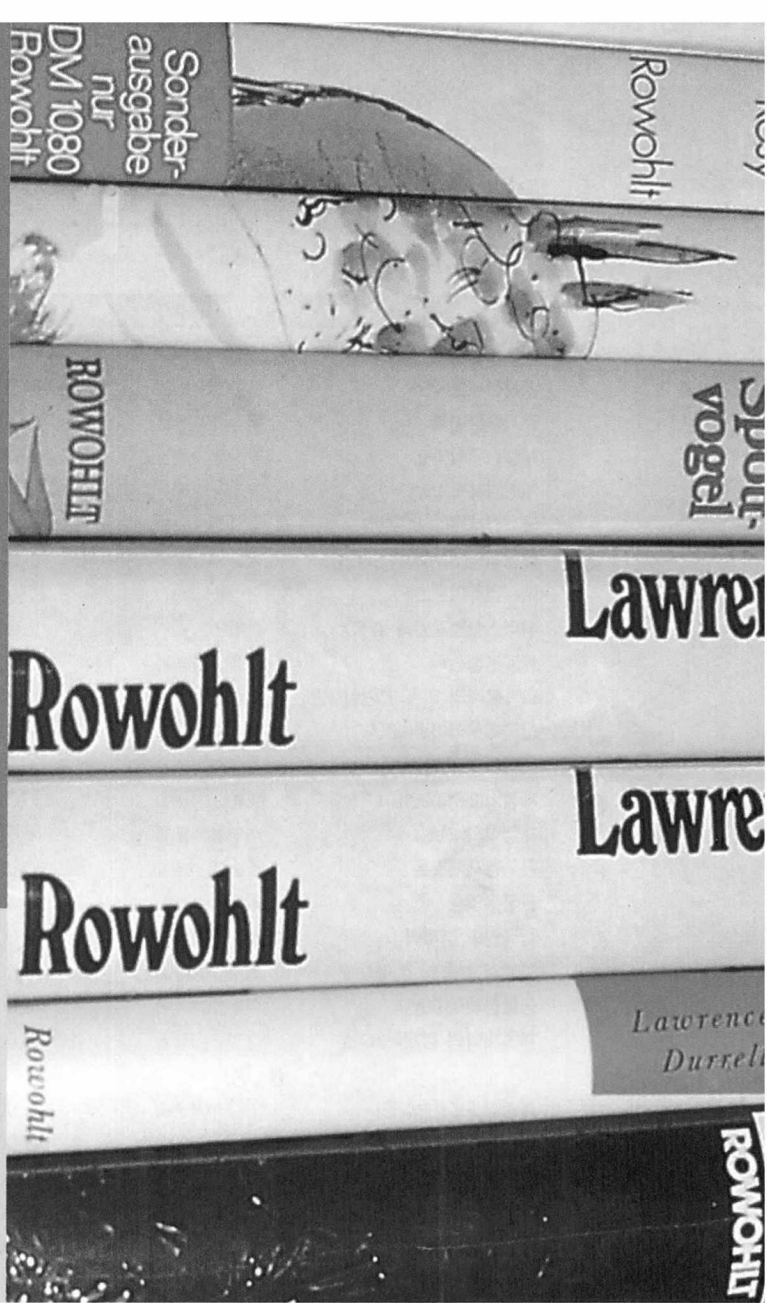
독일의 삶 같은 문화, 로볼트 종이출판의 미덕과 미학의 현장

민병일 | 시인 · 독일 함부르크 미술대학 시각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

로볼트에서 느낀 것은 종이 출판의 미덕과
미학이 조화된 상품으로서의 예술이다.
그것들이 침묵처럼 쌓여
삶과 신호를 주고받는 그 자리에서
문화 또한 발원한다는 것이다.

“문화(Kultur)란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결코 일반의 승인 혹은 강제적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신 발전의 총화이다”

— 부르크하르트



독일의 넓고 허름한 어느 지하 레코드점에서, 한국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데뷔 음반(DG)과 카잘스의 바흐 모노 레코딩(CBS), 슈바르츠코프의 매혹적인 미성에 젖어드는 푸르트벵글러의 피아노 LP(EMI)를 힐끔에 산 적이 있다. 모노시대의 따뜻한 그리움에 감전당했을 때, “그래 오늘 저녁은 굶어도 좋다”고 주머니를 털던 그날은, 쓸쓸한 시 한편이 써질 것만 같았다. 귀가길, 종이를 구겨놓은 듯한 독일 하늘에도 별이 반짝이고, 문화란 어떤 그리움과 떨림으로 생성되는 섬광처럼, 광휘롭게 인간을 보듬는 오래 묵은 빛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낯선 도시에서 문화를 감지해낸다는 것은, 어떤 선형적이고 원초적인 감흥이 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꿈꾸지 않으면 그 꿈이 이뤄질 수 없듯, 내 몸의 더듬이가 낯선 도시의 숨

결에 잠입해 뒹굴고 호홉하지 않는 한, 나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것 같아서 한편 그것이 두렵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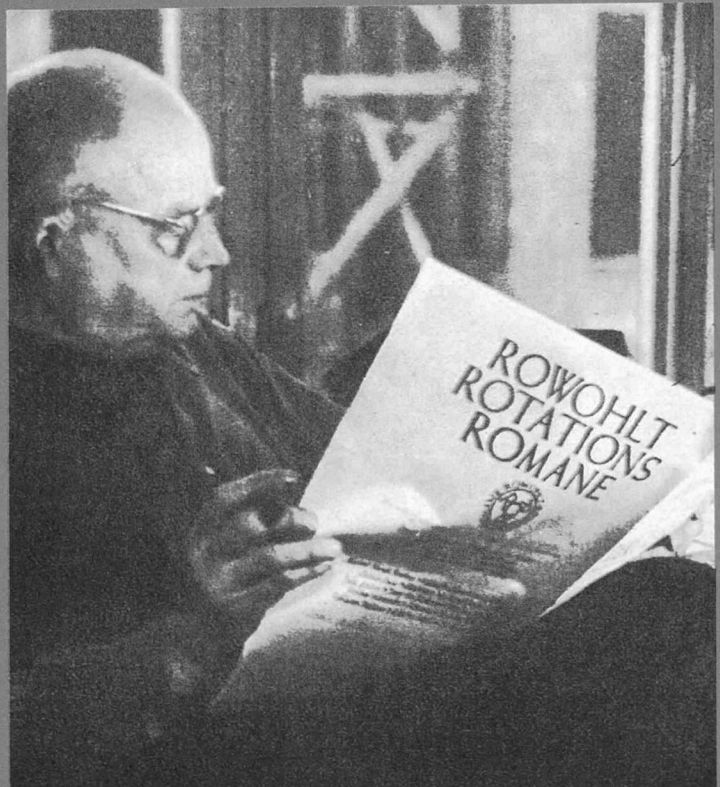
정신의 교역장으로서의 문화

독일의 유명한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로볼트(Rowohlt)를 방문하기에 앞서, 문화에 대한 잡념을 떠올리다가, 부르크하르트가 말한 ‘정신의 교역장’으로서의 문화를 생각했다. 90년이 넘는 출판사로볼트는 하나의 문화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삶에서 배어나오는 문화를 가진, ‘삶’ 같은 문화, ‘문화’ 같은 삶을 가진 게르만.

내가 로볼트에서 주눅든 것이 있었을까? 하루에 신간이 세권씩 나오고 매년 700권의 책이 쏟아져나온다는 것, 신간 서평 홍보지 <로볼트 리뷰>(국배판, 80쪽, 65만부 배포)에 3개월마다 150만 마르

크(한화 약 10억원 이상)를 쏟아붓는다는 것, 독일의 4천5백여 출판사 중 4위라는 것, 모든 원고는 예이전이나 추천을 통해 들어오고 40명의 원고심의 위원(Rektorat)이 출판을 결정한다는 것,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 선정에 8권이 뽑혔다는 것, 그 비결은 책을 예쁘게 만든다는 것, 당연히 제작비가 올라가지만 독자들이 출판사를 믿고 책을 산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 통독 후 동구권 문학을 겨냥해 베를린에 ‘로볼트 베를린’을 만들었다는 것.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이 부럽고, 그 ‘것’들에 주눅든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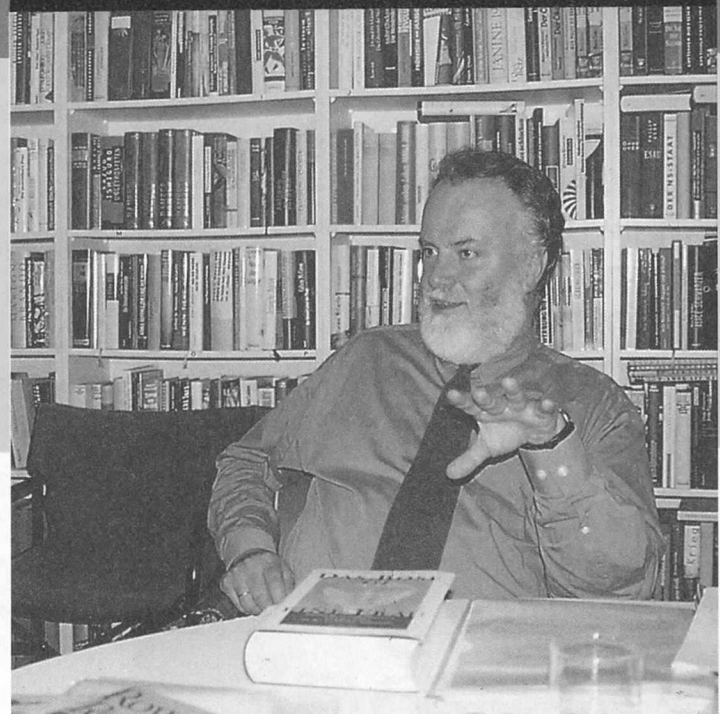
문명이 발원했던 고대 도시 건축물의 길고 긴 회랑을 지날 때의 감흥처럼, 로볼트의 긴 복도 회랑에는, 연금술사가 피워내는 서책의 화학반응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해묵은 포도주 향보다 더 깊고 그윽한 서책의 빛깔과 향기가 이방인을 주눅들게



창업주의 아들인 '하인리히 마리아 레디히 로볼트' 사장이 '로로'의 로고가 크게 박힌 신문을 보고 있다. — 오른쪽 위

'로볼트는 모든 분야의 책을 잘 만든다는 대중출판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로볼트의 홍보 총책임자 프랑크 셰프터. — 오른쪽 아래

하루에 세권씩 연간 700종 이상 발행되는 로볼트사의 책들. — 왼쪽



하는, 지혜의 공간 앞에 섰을 때의 어찌할 수 없는 부러움, 바로 그 '것'들이었다.

모방(Mimesis)을 말하고 그 뜻을 갈파한 사람이 플라톤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일까 아니면 붕이 김선달일까.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하인리히 마리아 레디히 로볼트'라는, 옛가락처럼 길게 늘어진 이름의 출판사 창업주 아들이다. 2차대전 당시 그는 미국에 포로신세로 있으면서 미국에 유행하던 포켓북에 충격받아 독일에 돌아오자마자 독일식 문고판(Taschenbücher)을 만들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볼트의 얼굴마담격인 <rororo> 시리즈다. ro(Rowohlt) ro(Rotations) ro(Romane), 소설을 운전기에서 신문이 돌아가듯, 팡팡 찍어 팔겠다는 기막힌 로고처럼, 49년에는 독자가 400만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로볼트는 '무한에의 충동'으로 새로운 세기에 맞을 100주년을 향해 사색하고 산책하며, 때로는 전차군단처럼 다가서고 있다.

새로운 세기 향한 '무한에의 충동'

출판이 무엇일까, 생각할 경황도 없이 출판일로 동분서주하던 편집쟁이 시절이 되 살아온 것은 로볼트의 아담하게 꾸며진 방. 장미꽃이 피어 있고 책이 천장까지 닿아 있는 시간 속에서였다. 닳아질 것 같으면서 닳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닳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닳아지는 것들이 있다. 폐기처분된 줄 알았던 LP음반의 소리는, 창밖에 내리는 저녁 빗소리처럼 고풍적으로 되살아 지친 삶을 끌어안는다. 지난 시절부터 LP표지는 내게 복디자인의 스승이었고, 소리는 상상력의 심연에까지 닿게 해주었다. 어리석게도 종이 출판의 영원불멸성을 신봉하는 나는, 책의 지질에서 묻어나는 감수성이 욕망의 누선을 자극해, 영혼에 감흥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다. 아름다운 책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동격이다.

'작은' 왕국처럼 '큰' 출판사 로볼트에서 느낀 것도 종이 출판의 미덕과 미학이 조화된 상품으로서의 예술이고, 그것들이 침묵처럼 쌓여 삶과 신호를 주고받는 그 자리에서, 문화 또한 소리없이 발원한다는 것이다. ●